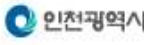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	
		배포일자 2021년 4월 11일(일) 총 3매				
담당 부서	해양친수과	담당자	• 친수공간시설팀장 권순광 ☎458-7156 • 담당자 신우창 ☎458-7157			
<b>사진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## 해안철책 부지, 친수여가공간으로 탈바꿈

- 12일 소래 해오름공원~남동국가산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 착공 -  
- 자전거도로·보행·녹지 공간 조성, 전망대 설치해 낙조 감상 -  
-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올해 성공적 마무리, 시민들께 열린 바다 제공할 것 -

인천시가 보행공간이 협소한 소래·논현지구 남측 해안로 철책 철거 부지를 활용해 자전거도로, 보행로, 녹지 및 해안 전망대를 조성해 소래해오름공원과 연결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여가공간 마련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영업소 남측 해안변의 철거된 철책과 초소부지에 경비 CCTV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고, 시민에게 열린 바다를 제공하기 위해 ‘소래해오름공원~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공사’를 12일 착공한다고 밝혔다.

36억 원을 들여 철거된 철책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·보행·녹지공간 조성(600m)과 함께 고가교인 아암1교에 부착식 보행데크(400m)를 설치해

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하고, 초소부지는 전망대를 설치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올해 말 개방할 계획이다.

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보행데크·휴게쉼터 및 소래해넘이다리 인근에 친수전망대를 착공해 올해 말까지 준공·개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, 본 사업과 연계해 소래습지생태공원부터 소래포구를 거쳐 아암로를 따라 용현갯골유수지까지 연안친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, 전망휴게쉼터 등이 완성된다.

손병득 시 해양친수과장은 “현재 추진 중인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‘친수도시 인천’으로 나아가는 기틀이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철책철거 및 기존 친수시설과 연계될 때 효과가 높은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 및 소래 해안 연결축사업 최종보고서



〈공사현장 해안로〉